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3/2016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소비자들에게 새 세무 시즌 사기에 대해 경고

재무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세요

뉴욕주민들이 신용사기, 사기와 신원 도용을 신고할 수 있는 새 웹페이지 출범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소비자들에게 재무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새 세무 시즌 사기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여러 주에 걸쳐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자들이 연방 및 뉴욕주 재무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민들이 신용사기, 사기 활동과 신원 도용을 신고할 수 있는 새 웹페이지의 출범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뉴욕주민들을 등쳐 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진력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조심하고, 개인정보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심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해당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재정 담당 커미셔너 **Jerry Boo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납세자들은 특히 악의적인 사람들이 방심한 납세자를 착취하려 드는 세무 시즌에 이러한 범죄에 조심해야 합니다. 재무부 직원으로 행동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신원 도용의 피해를 당했다는 우려가 들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새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용사기, 사기와 신원 도용을 신고하십시오.”

경제 기회 담당 차관으로서 뉴욕주 소비자보호과를 감독하는 **Jorge Montalv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급속한 기술 진보로 범죄인들은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여, 특히 세무 시즌에 뉴욕주민들의 땀흘려 번 돈을 사취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세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조심하고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즉각 해당 당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세무 신고자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을 겨냥합니다. **Cuomo** 지사는 납세자들이 세무 시즌 초기에 등장하는 다음 세 가지 신종 사기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 **뉴욕주 또는 연방 재무부 직원으로 행세하는 사기꾼** - 전화하여 뉴욕주 재무부 직원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50 달러와 함께 그들의 은행 계좌 정보를 넘기면 그 보답으로 후일 더 큰 액수의 현금이 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번호, 주소와 처리를 위한 확인 코드를 제공합니다. 뉴욕주민들은 또한 연방 재무부 직원으로 행세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습니다.

이 사기의 샘플 녹음을 들어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 부담적정보험법 벌칙금 편취 - 보험에 들지 않은 뉴욕주민들은 부담적정보험법에 의거한 벌칙금 관련 다른 세금 사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을 수 없는 세무 작성자들이 의뢰인에게 벌칙금을 직접 자기에게 내도록 한 다음 그 돈을 착복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어떤 개인이나 세무 작성자에게 직접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납부는 세무 신고서와 함께 또는 IRS의 통지서에 대응하여서만 해야 합니다.

3. 표적이 되는 세무 작성자 - 세무 작성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사기는 의뢰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통해 세무 작성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꾼들은 납세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얻을 희망으로 IRS 직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뉴욕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기 위해 Cuomo 지사는 다음 팁을 제공하였습니다:

• **전화하여 협박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IRS

요원이나 세무부 직원으로 행세하는 도둑들은 년중 이 때를 이용하여 납세자를 등쳐먹습니다. 귀하의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는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NYS 세무부와 IRS는 세금 채무에 대해 전화나 이메일을 하기 전에 항상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세무 요원이라고 주장하거나 귀하가 직접 채무를 납부하라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동의하지 마십시오.

• **“피싱” 이메일에 주의하십시오.** 납세자들은 허구의 정부 로고를 붙이고 가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NYS 세무부와 IRS는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결코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IRS](#) 또는 [세무부](#)의 웹사이트로 감으로써 이러한 허위 이메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원 도용 방지.** 여러분의 세무 신고서는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여 ID 도둑과 사기꾼들이 추구하는 개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본인이 신뢰하는 세무 작성자에게만 제공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에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규칙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

• **신고** - 사기를 시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연락을 받거나, 사기 또는 신원 도용의 피해를 당했거나, 세무 작성자가 불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세무부의 신중 사기 [웹페이지](#)에서 그것을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2015년에 뉴욕주 과세재정부는 291,000여 건의 의심스러운 소득세 신고를 파악하여 납세자들에게 5억 달러를 절약시켜주었습니다. 범죄 활동이 의심되면 조사되고, 해당되는 경우, 검사에게 이관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